

고흥군 귀어인 양식어장 제공 신청자 쇄도

청년 창업어장 565ha 61명 지원 참여자 45명 선정

멘토링·현장 실습 등 지원...도시민 어촌 정착 도움

고흥군이 귀어하는 도시민에게 양식어장을 제공하는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도시에서 온 젊은 어부들의 높은 관심 속에 참여자들이 몰리면서다.

젊은이가 빠져나가면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전남 해안가 소도시들이 도시 청년들을 끌어들이 지역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대안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고흥군은 29일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위해 조성한 창업어장(565ha) 참여자 4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시민들을 위한 어장 조성 사업은 고흥

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한 사례로, 소득은 높지만 진입장벽이 높은 양식어업장을 귀어하는 도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업 시작 단계 주목을 받았다.

귀어난 도시민들의 경우 어선어업이나 양식어업을 통해 어촌에 정착하는데, 허가신청을 구입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어선어업과 달리, 양식어업은 면허자가 한정돼 귀어인들의 진입이 어렵다.

고흥군은 이같은 점을 감안, 전남도와 머리를 맞대 도시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양식어업의 장벽을 낮추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귀어를 위한 별도 어장을 고흥만, 소록도와 수락·부아도 일대에 조성했고 어업권자인 고흥군수협·나로도수협과 협약을 맺은 뒤 귀어인의 지위를 보장해주도록 했다. 39세 이하 청년 뿐 아니라 45세 이하 도시민까지 참여 대상을 늘려 우선적으로 양식어장을 제공했다.

도시 청년들의 관심은 컸다. 참여자 모집이 시작되자마자 문의가 끊이지 않았고 신청도 잇따랐다. 다소 까다로운 지원 조건에도 61명이 지원, 모집인원(45명)을 채웠다.

군은 심사를 거쳐 김(500ha·30명), 미역(40ha·6명), 가리비(25ha·9명) 등 창업어장을 일곱 짝은 어부 45명을 선정했다. 고흥군은 신규 어장의 경우 도시 어부들과 5

년간 계약이 가능한데다, 수산물 수요 증가 및 가격 상승 분위기 등을 들어 도시민들의 어촌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어촌계의 높은 장벽 탓에 귀어를 주춤하고 있는 도시 청년들을 불러들일 효과적 유입 정책임을 들어 확

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흥군은 다음달 청년 어부 중 선도가를 선정하고 선배 양식 어민들의 멘토링과 현장 실습을 통해 어장 경영 지식, 노하우를 전달하는 등 어촌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새내기 도시 어부들이 안정적으로 어촌에서의 삶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인구 늘릴 아이디어 보내 주세요

곡성군 내달 한달간 공모전

곡성군이 인구를 늘릴 방법을 지역민들에게 묻기로 했다. 그동안 펼쳐온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다, 감소세가 멈추질 않고 있는 데 따른 어려움이 엿보인다.

곡성군은 다음달 1일부터 한달간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 창의적인 제안을 발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인구 정책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 보자는 고민이 담겨있다.

아이디어는 저출산 대응대책, 농촌 인문교육,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청년 정책 등으로 나누어 곡성군 홈페이지, 이메일로 응모하면 된다.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금상 100만원(1명), 은상 50만원(1명), 동상 30만원(1명), 장려상 10만원(5명)의 상금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곡성=김계중기자 kjim@

보성군 문예회관 내달 2일 국악·인디밴드 '락' 공연

보성군은 다음달 2일 오후 7시 30분 문예회관에서 국악과 인디밴드 음악드라마 '락(樂), Rock'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행복한 문화를 즐기는 아트페스티벌'의 5번째 프로그램으로, 인디밴드와 소리꾼인 이우나, 피라·태평소 연주자 권아현이 나서 전통과 현대 음악이 어우러진 공연을 펼친다.

대중가요, 7080 인기가요 등 관람객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문의 061-850-8660~2.

한편, '행복한 문화를 즐기는 아트페스티벌'은 '2017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복권기금에서 지원받아 열리고 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울긋불긋 타오르는 삼홍...구례 사성암·피아골 단풍 절정

내달 4·5일 지리산 단풍축제

구례 곳곳이 오색 단풍으로 풍성하다. 사성암은 빨간빛·노란빛으로 물든 지리산 풍광과 구례를 담으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사성암은 대한민국 명승 111호로, 원효·의상·도선·진각 등 4명의 고승이 수도했다고 해서 사성암으로 불린다.

구례 피아골에도 등산객들로 북적인다. "지리산이 붉게 타니 산홍(山紅)이요, 단풍에 비친 맑은 소(澗)가 붉으니 수홍(水紅)이요, 산에 들어선 사람도 붉게 물드니 인홍(人紅)"이라는 피아골 단풍은 가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로 유명하다.

구례군은 다음달 4일부터 5일까지 구례군 토지면 직전마을 및 피아골 일대에서 '제 41회 지리산 피아골 단풍축제'를 연다. /구례=이진택기자 jit@



오색 단풍이 운무와 어우러져 환상적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구례 사성암 전경.

<구례군 제공>

구례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1명 선발

구례군은 최근 '2017년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1명을 선발, 본격적 운영에 들어갔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비롯, 산불 취약지를 돌며 산불 발생 요인을 미리 차단하는 활동 등을 펼치게 된다.

취업난 등의 여파로 하루 5만5000원의 임금과 4대 보험 가입 및 교육비 지급 등으로 인해 41명을 뽑는데 53명이 지원했다.

15kg짜리 등짐펌프를 지고 공설운동

장 400m를 전력 질주하는 체력 검증도 치러졌다.

산불 진화를 위한 체력이 중요한 만큼 선발 기준에도 산불감시원 등 종사경력(20점) 외에 연령·체력(10점)도 점수에 돌며 산불 발생 요인을 미리 차단하는 활동 등을 펼치게 된다.

군 관계자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성실한 역할 수행을 위해 지속적인 체력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기자 jit@



구례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응시자들이 최근 등짐펌프를 지고 경기장을 전력질주하고 있다.

<구례군 제공>

보성 벌교천변 500m 경관조명 설치

보성 벌교천변에 경관조명이 설치돼 야간에 걷는 재미가 쏠쏠해졌다.

29일 보성군에 따르면 벌교 천변 500m 일대를 체험·휴식·교육·전시의 길 등 4개 테마로 선정, 경관조명을 설치한 문화의 거리로 조성했다. 총 사업비로 8억 5000만 원을 들었다.

보성군은 벌교 출신 인물가를 그려넣은 벽을 설치하는가 하면, 소설 태백산맥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제작해 세웠다. LED

조명과 사진 찍을 수 있는 디자인 벤치를 마련해 관람객들 심터로 제공하는 한편, 은하수의 신비스런 느낌을 오색 빛깔을 담은 마리아나리 등을 설치해 주·야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군은 경관조명 사업으로 찾아오는 관람객들이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보성=김용성기자 kim0686@



벌교천변에 조성된 경관조명.

<보성군 제공>

북구, 삼각동 토지

- 광주 북구 삼각동 147-4, 11, 15번지 - 313평
- 209, 209-1번지 - 203평
- 31사단, 삼일아파트 지나서 옆마을
- 총 516평, 필지별 매매가능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단기간 투자 최고지역
- 매매 - 평당 170만원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한전(KPS)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무인텔”

콘도 / 리조트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2013년 준공)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52억
- 온천지구 내 '(주) 바리오 화순'에
- 650억 투자 예정 (2018년 2월 착공예정)
- 요양병원, 연수원 등 용도변경 가능

친절상담 010-3605-5000